무용지물 CCTV 추가 설치 논란

쓰레기 투기 감시 3년간 적발 실적 전무

해남군 또 수천만원 투입 예산낭비 비난

해남군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05년 2천 400만원을 들여 해남읍 수성리 금영아파트와 해남중학교, 5일시장 앞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6대와 모형 카메라 10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운영 3년째가 되도록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 이는 쓰레기 무단 투기 장면이 기록되더라도 식별이 어렵고, 녹화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시 카메라를 모니터링할 전담 공무원이 없는데다 무단투기 장면이 촬영되더라도 이 장면을 출력한 후 해당 지역을 방문해 무단 투기자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부터는 감시 카메라의 촬용 내용을 녹화·전송하는 인터넷 회선마저 차단돼 사실상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상태다.

그러나 해남군은 올해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남읍 킹사우나와 읍 교회, 서림공원, 제일빌라, 중부교회 앞 등에 5대의 감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에 설치될 카메라는 야간 촬영도 가능한 기종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담 공무원이 없고 촬영 자료를 바탕으로 무단 투기자를 찾아내야 하는 만큼 단속 업무가 제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이고, 야간 촬영도 가능한 기종"이라면서 "앞으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강진에 초대형 하멜 동상 '우뚝'

기념관 개관 1주년 내달 3일 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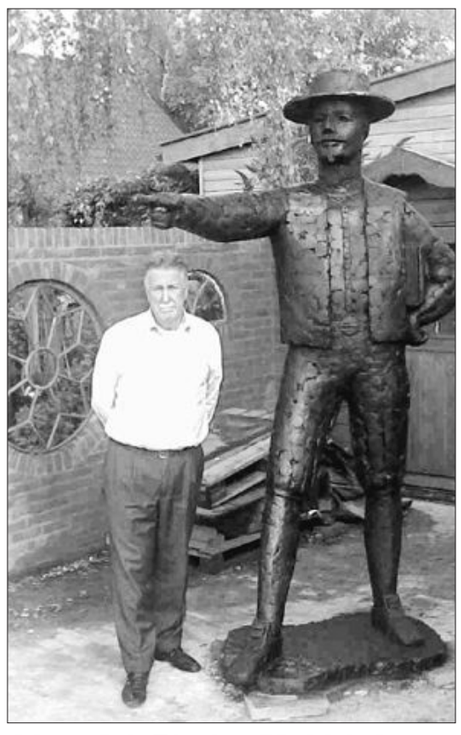
하멜 고향 출신 조각가 제작 기증

강진에 하멜 표류기 주인공인 '헨드릭 하멜(Hendrick Hamel)'의 초대형 동상이 세워졌다.

강진군은 하멜기념관 개관 1주년을 맞는 다음 달 3일 병영면 현지에서 하멜 동상 제막식을 개최한다. 이 동상은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 호르큼시 출신 조각가 얍 하트만이 5개월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높이 2.5m, 무게 3t에 달한다. 동상은 모자를 쓴 하멜이 항해도 중 손가락으로 목적지를 가리키는 모습이며 재질은 주철이다.

조각가 하트만은 지난 2003년에도 1.5m 크기의 하멜 동상을 기증했는데 이번 작품은 이를 확대한 것이다. 하멜기념관은 대지 4천500여㎡, 전체면적 400㎡으로 조선시대 전라도 육군 총지휘부인 병영성 부근에 건립돼 있으며 31억원이 투입됐다. 기념관에는 호르큼 시에서 기증한 하멜 동상, 17세기 사용됐던 대포와 소총 등 무기, 하멜의 편지와 저서 등 50여 점이 전시돼 있다. 또 조선후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각종 생활용품과 10여년간 이어온 강진과 네덜란드 교류사, 유명인사 등이 기증한 유럽 고지도, 청화백자 등도 선보이고 있다.

강진군은 이번 동상 제막을 계기로 기념관 주변에 튤립, 들국화 등이 어우러지는 공원을 만들고 풍차 등 기념물도 세울 계획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하멜 표류기'의 주인공인 헨드릭 하멜의 초대형 동상이 강진에 세워졌다. 하멜 동상은 네덜란드 조각가 얍 하트만이 제작한 것으로 높이가 2.5m에 달한다. 왼쪽은 호르큼시 하멜재단 이사인 쟈크 스넵씨.

영암·장성 농협쌀 공동법인

고품질쌀 브랜드에 선정

영암과 장성의 농협쌀공동법인이 농식품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쌀 수입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8곳을 선정해 오는 2013년까지 전국 100곳의 시·군 단위 대표 브랜드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도 전국 18곳이 신청해 민간 전문기관에서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 공개발표 등의 평가과정을 거쳐 영암과 장성 등 전국 9곳이 최종 선정됐다.

영암·장성 농협쌀공동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 등 44억원이 지원돼 고품질 쌀 가공시설 현대화와 농가 교육 등이 추진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하우스 딸기 출하 담양군 남면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수확이 한창이다. '대숲맑은 딸기'라는 담양군 특산품 브랜드를 걸고 출하되는 남면 딸기는 탁월한 당도와 신선함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담양군 제공〉

강진 송월권역 농촌개발 최우수 사업비 5억원 확보

강진군 송월권역(송월·영풍·월하·월남리)이 지난 3년동안 가장 모범적으로 지역 역량을 집중,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5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20개 권역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추진 상황을 평가한 결과 송월권역을 최우수 권역으로 선정했다.

송월권역의 경우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민박과 체험행사를 활발히 펼쳐 인구와 소득을 크게 늘린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 권역에는 권역발전기금 3천만원이 지급되고 해당 지자체에도 5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같은 생활권의 여러 마을을 하나로 묶어 지역주민과 지자체·전문가들이 지역 특성과 자원을 고려, 스스로 계획을 세운 뒤 추진하는 상향·주민참여형 개발사업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소방장비 점검 평가

담양소방서 1위

담양소방서가 전남도 주관 '2008 소방장비점검 평가'에서 도내 10개소방서 중 최우수 소방서로 선정됐다.

이번 소방장비점검은 전문가 및 전문기술업체 기술요원들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10개 소방서를 순회하며 실시했다. 담양소방서는 이번 점검에서 보유중인 소방차 등 장비의 작동상태와 조작능력 관리운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봉수 서장은 "소방장비 조작훈련과 점검정비 철저로 재난 발생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전남 농촌 복지·농업예산 대폭 늘어난다

내년도 전남도내 농촌지역 복지와 농업발전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최근 2009년 예산안을 확정한 화순군 등에 따르면 노인복지 부문과 농업관련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은 지난 23일 올해 보다 19.6%가 늘어난 3천703억원 규모의 200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사회복지, 지역개발, 농업분야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사회복지 부문 중 노인복지 예산이 228억원으로 올해보다 56%, 문화관광 부문도 173억원으로 50%가 각각 증액됐다. 또 농업 관련 예산(638억원)과 지역개발 예산(348억원)도 18%, 34%가 각각 늘었다.

해남군은 2009년도 예산안으로 총 3천873억 4천500만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

내년 예산안은 군정 방침인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기 위한 농·수·축산업 분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971억(28.0%),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 299억(8.6%), 지역개발 분야 297억(8.5%), 군민건강과 복지증진에 918억(26.4%) 등이다

진도군도 24일 2천598억원 규모의 200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진도군은 소모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 주민소득증대 및 경제 살리기 사업 예산으로 재투자해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기했다.

가장 예산 투입이 많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73억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사업 18억원, 농기자재 지원 18억원, 시설하우스현대화 확충사업 5억원 등이다. /지방종합

화순 모후산의 대변신

정자 짓고 등산로 정비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화순군 모후산이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모후산 용문재에서 전완준 화순군수와 산림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숲길 부문 어울림상(장려상)을 수상한 삼나무 숲길 해설판 제막식을 가졌다.

또 모후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정자를 새롭게 짓는 등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했으며 지난달에는 전국 산악회원들을 초청해 대규모 등반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모후산(918m)은 기암괴석과 깊은 계곡이 어우러져 있으며 50년 된 편백숲과 소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산림욕을 즐기기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전완준 군수는 "모후산의 아름다운 숲길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외지 산악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꾸준히 등산로를 정비하고 가꿔 등산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을 만들겠다"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